

# 순천 보선은 호남개혁공천 방향타

## 자천타천 후보군 10여명 벌써부터 열기

### 개혁성·참신성·전문성 고려 공천해야

27일 대법원이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순천)에게 국회의원직 상실형을 확정, 오는 4월 27일 보궐선거가 치러질에 따라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순천시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차기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호남 개혁 공천'의 흐름을 보여주는 방향타 역할을 할 전망이다.

우선 지역 정계에서는 서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예상한 일부 입지자들이 오래 전부터 물밑 행보에 이미 나선 상황인데 이날 보궐선거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선거 열기는 벌써부터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순천 국회의원 보선 후보군은 10여명에 달한다. 허상만 전 농림부 장관, 허신현 전 농림부 장관, 정순균 전 국정홍보처장, 박상철 경기

대 교수, 조순용 전 청와대 정부수석, 허신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신택호 변호사, 구희승 변호사, 이광수 전 민주당 대변인, 장성배 전국청년경제인협회 사무총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순천에 개인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시민과의 접촉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무소속 노관규 시장의 행보도 관심사다. 노 시장은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로부터 120일전에 단체장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출마가 봉쇄된 상태다.

그러나 노 시장 측은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하는 등 출마 강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후보 공천과 관련,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

주당의 순천 국회의원 보궐 후보 공천이 차기 총선에서 '호남 개혁 공천'의 가능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와 달리 민주당을 바라보는 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점에서 민주당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공천의 키워드는 경륜보다는 개혁성과 참신성, 전문성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서갑원 의원의 국회의원직 상실에 따라 민주당 소속 시의원 등 지역 정치권의 역학관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보궐선거를 앞둔 순천 민심의 흐름은 개혁성과 참신성, 그리고 순천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인물을 원하고 있다"며 "특히, 민주당이 투명한 공천을 하지 않는다면 민심의 역풍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임영욱기자 tuim@kwangju.co.kr

# 판 커진 4·27 재보선 한나라 느긋 민주 초조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광재 강원지사과 민주당 서갑원 의원의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오는 4월27일 예정된 재·보궐선거가 수도권과 강원도, 영·호남 지역 등으로 확대되자 여야 각 당에 비상이 걸렸다.

이재·보선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초선 선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현재 재보선은 ▲광역단체장 1장(강원) ▲경기 성남 분당을, 경남 김해읍, 순천 등 국회의원 3곳 ▲기초단체장 2곳(울산 중구, 동구) ▲광역의원 3곳(울산광역시, 충북, 전북) ▲기초의원 5곳 등 서울과 충남, 제주 정도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14곳에서 열린다.

한나라당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전략을 짤 수 있게 됐다. 민주당 소속 지사와 의원이 자리를 비운 강원과 경남 김해읍의 경우 과거 자신들의 텃밭이었던 만큼 고토 회복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유일한 수도권 성남시 분당읍의 경우도 한나라당 강세지역이어서 큰 걱정을 하지 않는 분위기다. 더욱이 기초단체장 선거도 울산에서 치러져 전체적인 선거구도가 유리한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내달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원희룡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4·27 재보선

### 강원지사·순천 추가

### 전국 14곳으로 늘어

### 각 당 선거전략 부상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 선거전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잘해야 본전'인 상황이다. 순천의 경우 승리가 어렵지 않겠지만 강원지사와 김해읍 둘 중에 한 곳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체면 유지가 되는 것이다. 때문에 당측 해 하면서도 후보 물색에 조기 착수키로 하는 등 선거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28일 재보선 기획단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 후보 물색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낙연 사무총장은 "내년 총선, 대선으로 가는 전초전 성격이 적지 않은 만큼 좋은 인물을 고르고 야권 연대를 통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선거 지역이 확대되면서 각 선거구에서는 벌써 예비주자들이 이름이 오르내린다.

강원지사의 경우, 한나라당에서는 엄기영 전 MBC사장, 이계진 전 의원, 최흥집 전 정부부지사, 최준찬 강원도민회장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춘천 출신인 최문순 의원과 이광재 지사의 당선자 시절 인수위원장을 맡았던 강릉 출신의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조일현 전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김해읍에선 한나라당이 김태호 전 경남지사의 출마를 강력 요청하는 분위기지만 김 전 지사는 고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 출신인 김경수 봉하재단 사무국장, 이상업 전 국정원 2차장, 광진업 전 국제선 차장 등이 거론된다.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카드로 부상하고 있으나 본인이 고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분당의 경우 한나라당에서는 강재섭 전 대표와 박계동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조순선 의원 등 새 인물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김병욱 지역위원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신경민 전 MBC 앵커 등이 후보군에 포진해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년여만에 막 내린 '박연차 게이트'

# 전직 대통령 자살 참극 불러

2008년 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구속으로 시작된 '박연차 게이트' 사법처리 절차가 27일 대법원 선고로 2년여 만에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날 선고로 '박연차 게이트' 관련자 21명 중 19명의 사법처리가 모두 끝났고, 박 전 회장 본인과 친신일 세종나모 회장의 상고심만 남게 됐다.

대검 중수부는 2008년 가을 세종증권 매각과 휴켄스 인수를 둘러싼 비리의혹 내사에 착수해 그해 1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와 후원자인 박 전 회장, 고교동창 정화삼씨 등 12명을 구속기소했다. 이어 2009년 3월17일 이종욱 전 한 국해양수산개발원장 체포를 신호탄으로 불과 보름 새 송은복 전 김해시장,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장인태 옛 행정자치부 차관, 박정규 전 민정수석, 민주당 이광재 당시 의원 등 6명을 구속하고, 한나라당 박진 의원과 민주당 서갑원 의원을 차례로 소환 조사했다.

### 21명중 19명 사법처리

### "아권인사만 처벌" 반발

2009년 3월말 노 전 대통령 측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검찰은 정성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을 구속하고,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김호 씨 조사에 이어 4월30일 노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은 같은 해 5월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임제진 검찰총장은 수사를 서둘러 종결하고 사인했다. 중수부는 6월21일 박 전 회장을 포함해 21명을 기소하고 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부분은 내사 종결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박관용·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 박정규 전 민정수석 징역 3년6월, 정성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징역 6년, 장인태 전 행정부 차관 징역 8월, 송은복 전 김해시장은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이종욱 전 해양수산개발원장은 징역 1년, 김태웅 전 김해시장과 이택순 전 경찰청장, 김종로 전 부산고검 검사는 집행유예, 정대근 전 농협회장은 징역 5년이 확정됐다. 한나라당 김경원 의원과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민주당 서갑원·최철국 의원이 지사직과 의원직을 상실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이 같은 결과에 상당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박진·김정권 의원, 김상철 전 서울부시장 등 여권 인사에게는 무죄가 내려진 반면, 야권 인사에게는 가혹한 처벌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경우 도박(道伯)으로 선택받은 지 7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돼 아쉬움이 더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연차 게이트 재판 결과				
피고인	주요 공소사실	1심 선고	2심 선고	대법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조세모탈뇌물공여	징역3년6월, 벌금300억원	징역2년6월, 벌금300억원	파기환송
박관용 전 국회의원	2억원 1만달러 수수	징역1년집유2년, 추징금2억951만원	벌금150만원, 추징금951만원	원심 확정
김원기 전 국회의원	10만달러 수수	징역6월 집유1년, 추징금1억2,345만원 (확정)		
박정규 전 민정수석	상동권 1억원여지 수수	징역3년6월, 추징금9,400만원	징역3년6월, 추징금9,400만원	원심 확정
정성문 전 총무비서관	상동권 9천400만원 현금3억원 수수, 대통령수할동비 12억5천만원실행	징역6년, 추징금16억4천400만원	징역6년, 추징금16억4,400만원	원심 확정
장인태 전 행정부차관	8억원 수수	징역1년6월, 추징금8억원	징역8월, 추징금8억원(확정)	
송은복 전 김해시장	10억원 수수	징역2년6월, 추징금10억원	징역1년, 추징금10억원	원심 확정
이종욱 전 해양수산 개발원장	7억원 수수	징역2년, 추징금7억원	징역1년, 추징금7억원	원심 확정
추부길 전 홍보기획 비서관	2억원 수수	징역2년, 추징금2억원	징역1년6월, 추징금2억원(확정)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2만달러 수수	징역8월 집유2년, 추징금2천469만원	무죄	원심 확정
이광재 강원도지사	14만달러 2천만원 수수	징역8월 집유2년, 추징금1억4천800만원	징역6월집유1년, 추징금1억1,417만원	원심 확정
서갑원 민주당 의원	6천만원 2만달러 수수	징역6월 집유1년, 추징금5천만원	벌금1천200만원, 추징금5천만원	원심 확정
박진 한나라당 의원	1천만원 2만달러 수수	벌금300만원, 추징금2천313만원	벌금80만원	원심 확정
최철국 민주당 의원	5천만원 수수	벌금700만원, 추징금5천만원	벌금700만원, 추징금5천만원	원심 확정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	2만달러 수수	무죄	무죄	원심 확정
이택순 전 경찰청장	2만달러 수수	징역1년 집유2년, 추징금2천433만원	징역1년 집유2년, 추징금2,433만원	원심 확정
천신일 세종나모여행 회장	15만위안 수수 6억2천300만원 채무반제 요구	징역8월 집유2년	징역3년 집유4년, 벌금71억	계류 중
김종로 전 부산고검 검사	1만달러 수수	징역10월 집유2년, 추징금1천245만원	징역10월 집유2년, 추징금1,245만원	원심 확정
정대근 전 농협회장	휴켄스 인수비리 세종증권 매각비리	징역10년, 추징금78억7천18만5천원	징역5년, 추징금51억6천816만5천원	원심 확정
이광재 전 보보관 원모 씨	5만달러 수수	벌금500만원, 추징금2천만원	벌금300만원, 추징금2천만원	원심 확정
김태웅 전 김해시장	장인태 전 차관에게 자금전달	징역8월 집유2년(확정)		



# 세기보청기

##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점망** 서울 삼일로점(법률공인 상담) 02-2276-057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회) 02-733-0220 송파점(선릉역 2번 출구) 02-419-3388 경기 안성점(구.서민타운) 031-421-2288 부평점(부평역) 032-617-5110 수원점(남문) 031-824-5110 의정부점(보현보타리) 031-821-6655 안양점(백산소림2001) 아울렛 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031-65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 031-336-1090 오산점(국민은행 2층) 031-378-4183 부천점(GS백화점) 032-039-4400 부산 서면점(사면로타리) 051-818-8800 서면A점 818-0016 남포동점(부평국점) 051-256-7200 울산 울산점(광림로타리) 052-089-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055-297-6060 진주점(구.동명국점) 0551745-9870 창원점(한양은행면) 055-284-5055 대구 동인점(동인네거리) 053-425-4440 상역점(상역네거리) 053-426-1511 남양주점(아래미리국점) 053-425-7575 경북 포항점(해곡리) 054-024-5110 인동점(구.인동고속터미널) 054-659-2248 광주 광주점(구.도동) 062-225-5110 광주점(백동광장) 062-861-4477 전남 순천점(중앙시장) 061-752-8845 전북 전주점(신매로타리) 063-652-5728 군산점(구.시영점) 063-446-0198 익산점(백사시장-해곡리) 063-638-5900 남원점(시정네거리) 063-632-2826 대전 대전점(도청) 042-254-5110 대전점(충훈로타리) 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042-255-4900 울산 천안점(천안역) 041-653-2888 광주점(광주문사거리) 041-852-5110 충북 청주점(한.개포로) 043-222-1177-6 충주점(삼천로타리) 043-852-1414 강원 강릉점(옥천2가) 033-647-0588 춘천점(철호광장) 033-823-5110 제주 제주점(영랑로타리) 064-753-4356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FDA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국제인증 ISO 9001인증, 국제인증 ISO 13485인증, CE 0120 유럽공통 CE마크 인증, GMP 의료용기 제조업체 인증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1538-9388

■ 광주 구도심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 광주 북문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